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5. 11. 16. Vol. 46

■ 농정이슈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지자체 시달 등

■ 정책브리핑

내년 봄 가뭄대책 예산 편성 등

■ 연구지원

OECD 경제전망발표 등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 시달

-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지방자치단체 시달 및 교육 실시]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환경부와 공동작업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도 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 위해서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 선결 필요**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현행) 건폐율 60% 확대 운영가능하나 일부 지자체 미 지정 또는 하향 설정 → (개선) 133개 지자체 건폐율 60%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현행) 가설건축물 재질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 → (개선) 합성수지, 합성강판 1/2 이하 사용, 가축분뇨시설 및 가축양육살운동장 포함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현행)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 사육으로 축사 인정 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불가 → (개선) 방수재와 왕겨, 톱밥 등을 깔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운동장 적용 확대
(현행)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 (개선) 한·육우까지 확대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14.6~'15.1월) 결과에 따라 권고안을 축종별·규모별로 재설정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축사거리제한' 을 한시적으로 3년간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불법 축사에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적용을 3~4년간 유예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소독시설)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위반내용에 따라 적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축사차양,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축사 차양 3m까지(기 반영),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에서 건축면적 제외

자료 : 아시아투데이(2015.11.10.) / 국제뉴스·내일신문(2015.11.11.) / 전업농신문(2015.11.12.)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지자체 시달 및 농가 교육 실시」(2015.11.10.)

㉔ 농정이슈

□ TPP 협정문 공개 및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개최

- [5일 오후 TPP 협정문 공개]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통해 공개
 - 총 30개 챕터로 구성,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루어졌기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
 - (시장접근 분야) 관세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까지 최종 95~100%의 높은 자유화 수준, △우리 기체결 FTA 상대국의 시장개방 수준은 약 98~100% 수준으로 TPP와 유사
 - (규범 분야) 총 30개 챕터로 구성, 한·미 FTA에 없었던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등 신규통상이슈 추가
 - (차후계획) TPP 협정문 분석 T/F 가동하여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 우리 기체결 FTA와의 비교 등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
- [산업통상부,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개최, 11.10.] TPP, TTIP 등 세계 무역의 새로운 흐름 논의
 - 「메가 FTA와 세계무역체제 변화」, 「TPP: 한국의 현 위치와 대응방안」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3개 세션으로 진행
 - 피터 페트리(Peter Petri)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 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 및 기타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이득이 있으며, 한국 및 기존 TPP 회원국들에게 참여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다고 분석
 - 찰스 피니(Charles Finny) 손더스 운스워쓰사 파트너...한국은 TPP 참여 요건을 갖춘 국가, 큰 어려움이 없다면 최초의 가입국이 되는 전략을 추구해야

자료 : BBSEBNJTBCKBSMBCMBNMTNObstbs교통방송SBSVOA경향신문국민일보노컷뉴스뉴스1.뉴스웨이 뉴스타운뉴스팜뉴스시스더팩트머니투데이메트로신문민중의소리부산일보시사저널전자신문아시아경제 아이뉴스24이주경제연합뉴스이뉴스투데이아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조선비즈한겨레(2015.11.06.) / KBS YTN매일경제비즈니스포스트.위클리오늘파이낸셜뉴스한국농어민신문(2015.11.07.) / 건설경제신문 경제투데이노컷뉴스뉴스1.뉴스웨이뉴스시스머니투데이시사저널아시아경제이주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 주간무역파이낸셜뉴스(2015.11.10.) / CNB뉴스물류신문서울경제세계일보연합뉴스(2015.11.11.)

참고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_「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2015.11.06.)

「산업부,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개최」(2015.11.10.)

㉔ 농정이슈

□ 박대통령 FTA 연내 발효 강조

- [제48회 국무회의 중 발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체결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속히 처리되어서 반드시 연내 발효 되어야 할 것

- 금년 내 미발효 시 하루 40억원 수출 기회가 사라진다, 여야정 협의체 하루 빨리 가동하여 기업들이 FTA 효과를 빨리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 당부

자료 : SBS경인일보·국민일보·국제뉴스기호일보·데일리안·매일경제·머니투데이·메트로신문·브릿지경제·세계일보·아주경제·연합뉴스·이코노믹리뷰·이투데이·전자신문·한겨레(2015.11.10.) / 국민일보·뉴스서울·서울신문·스타서울TV·일요신문·충남일보·한강타임즈(2015.11.11.)

참고 : 청와대 인사이드_「박대통령, 제48회 국무회의 주재」(2015.11.10.)

□ 식량 자급률 목표로 끝나나

- [농민신문, 식량자급률 관련 보도, 11.9.] 쌀·보리·밀 계획 크게 미달하였으며, 방안 제대로 이행안된다 보도

- 농식품부는 2015년까지 곡물자급률 30% 달성하겠다는 목표세웠으나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24% 수준에 불과, △식용 곡물 목표치 57%이나, 지난해 기준 49.8% 수준, △밀의 경우 10% 목표했으나, 1.1% 수준

- △답리작 재배 확대를 핵심 방안으로 추진했으나 경지이용률은 2010년 104.8%에서 지난 해 102.5%로 오히려 감소, △논 이모작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재배 유인책 강화 주장 나오는 중

- △국산 곡물 소비촉진 방안 미흡, △안정적 판로없이 생산만 과중 등의 문제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 등을 이용해 국내산 곡물수요처를 미리 확보한 후 답리작 확대 통한 생산 증대 나서는 것이 필요

자료 : 농민신문 보도_「식량자급률 목표 달성 왜 더딘가」(2015.11.09.)

□ FTA 원산지 협상전략 및 활용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부, FTA 협상전략 및 각 FTA 활용설명회 개최, 11.10.]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소개 및 활용방안 설명

-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은 상품에 한해 특혜관세혜택이 부여되나 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

㉔ 농정이슈

- FTA 원산지 협상 자문단 구성, 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의 협업 등 업계의견 반영

자료 : EBN건설경제신문·노컷뉴스·뉴스1·뉴스웨이·뉴시스·머니투데이·시사저널·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에너지경제·전자신문·주간무역(2015.11.10.)

참고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_「FTA활용의 시작, 원산지 인정에서부터」(2015.11.10.)

□ 지리적표시 농식품, 중국으로 진출한다

- [농식품부, 상해식품박람회에 지리적표시 농식품 생산 업체 참가 지원] 올해 19회 째 개최되는 중국 내 식품, 와인, 음료 분야 가장 규모있는 박람회에 참여
 - (지리적표시) 농수산물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2015.10월 현재 148개 농림축산물 등록)
 - (주)보향다원(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호 보성녹차), 명품하동녹차사업단(제2호 하동녹차), 참살이영농조합법인(제14호 고흥유자),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제26호 진도홍주), (사)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제42호 해남고구마), 고흥석류친환경영농조합법인(제94호 고흥석류) 6개 업체 참여
 - 한·중 FTA 등 시장 변화에 따른 **국내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 모색** 위해 지원

자료 : 뉴스1·뉴시스·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주간무역·한국농민신문(2015.11.10.) / 국제뉴스·전업농신문(2015.11.12.)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지리적표시 농식품, 중국으로 진출한다」(2015.11.10.)

□ 순대·계란·떡볶이 식품안전인증 의무화

- [식품안전처, 순대·계란·떡볶이 HACCP 의무화] 깨진 계란, 대장균 떡 등 불법 유통 사례 지속으로 인해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정하고 식품관리 강화
 - 이달까지 표준 기준서 개발·보급 등 **도입 위한 지원 강화**

자료 : NSP통신·뉴스1·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이데일리·쿠기뉴스·한라일보(2015.11.10.) / G밸리·JTBC·KBS·MBC·m이코노미·SBS·tbs·교통방송·YTN·경기신문·경북매일신문·경제투데이·국민일보·글로벌이코노믹·내일신문·노컷뉴스·뉴스핌·뉴시스·대전일보·동아일보·동양일보·매일경제·매일일보·메디컬투데이·문화일보·미디어펜·베이비뉴스·부산일보·브릿지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스포츠신문·신아일보·아시아뉴스통신·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의학신문·이코노미리뷰·인터뷰365·조선일보·중앙일보·충청일보·파이낸셜뉴스·평화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2015.11.11.) / 문화일보·일간스포츠·쿠기뉴스(2015.11.12.) / 문화일보(2015.11.13.)

참고 : 정책브리핑_「국민 간식 순대·계란·떡볶이 식품안전인증 의무화」(2015.11.10.)

㉔ 농정이슈

□ 수입쌀 기획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31건 적발

- [농관원, 서울지역 음식점 대상 수입쌀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실시]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특별사법경찰 74명 등 동원하여 실시
 - (단속대상) 김밥전문점, 뷔페, 중국음식점 등 수입쌀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음식점 우선으로 단속실시
 - (적발실적) 거짓표시 26건, 미표시 5건 등 총 31건, 위반물량 22톤

※ 주요 적발사례

- #1. 김밥전문점 김밥○○에서 미국산 쌀로 만든 김밥의 원산지를 국내산, 미국,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여 판매(7백만 원 상당 / 4.4톤)
- #2. 중국음식점 ○○○서 미국산 쌀을 사용하여 만든 공기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5백만 원 상당 / 3.1톤)

-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위해 원산지표시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연중 상시단속 실시 및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 및 시기에 기획단속 지속 추진
 - ※ 중점관리대상 품목 : 배추김치 · 돼지고기 · 쇠고기 · 쌀 · 닭고기

자료 : MBN·강원신문·농촌여성신문·뉴스토마토·뉴시스·메디컬투데이·파이낸셜뉴스·한국농어민신문(2015.11.12.) / 전업농신문(2015.11.13.)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관원, 수입쌀 기획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31건 적발」(2015.11.10.)

□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

- [농식품부,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 졸업식 개최, 11.7.] 지난 5월 2일부터 20주간 200여 평의 텃밭 운영
 - 어린이 대부분이 도시에서 성장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식, 어린이들에게 텃밭체험을 통해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
 - (농진청 「꿈틀 텃밭학교 프로그램 참가가족 변화」 분석 결과) △관계개선…특히 아버지와 관계 증진(3.47점→3.64), 이웃과의 교류 증가(53.2%→63.6), △인식개선…농업에 대한 친근감·호기심·흥미 증가 등, △의사소통…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긍정적 변화(3.83점→3.97),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텃밭활동 시기에 감소(5회→3) 등
 - 꿈틀텃밭학교 프로그램을 2016년도부터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대상 보급 예정
- 자료 : 아시아투데이·파이낸셜뉴스(2015.11.05.) / 국제뉴스(2015.11.07.) / 경향신문·연합뉴스(2015.11.08.)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3평 텃밭」에서 일군 의미 있는 수확」(2015.11.05.)

㉔ 농정이슈

□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 [교육부, 울릉도 소재 중학교에서 진로체험버스 프로그램 운영] 진로체험 어려웠던 울릉도 4개 중학교 학생들의 요청으로 마련
 - 진로체험 기회 부족한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진로체험버스 운영을 통한 양질의 진로체험 제공 목적
 - 4개 중학교 110명의 학생들은 울릉중학교에 모여 5개 반으로 나뉘어 전통 기술과 첨단 과학 체험, 학생들의 관심이 반영된 맞춤형 진로멘토링을 체험
 - 「찾아가는 농산어촌 진로체험 버스」 올해 12월까지 총 380회 운영 예정, 2016년에는 농산어촌지역의 모든 중학교로 확대 추진

자료 : 경북도민일보·매일신문·미디어펜·연합뉴스·조선일보(2015.11.08.) / EBS·경북매일신문·내일신문·베리타스알파·한겨레(2015.11.09.) / EBS·경상매일신문(2015.11.10.)

참고 : 교육부 보도자료_「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울릉도로 출발!」(2015.11.09.)

□ 2015년 우수 관광농원 17개소 선정

- [농식품부, 2015년 우수 관광농원 17개소 선정] 관광농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와 농촌관광의 활성화 위해
 - (우수 관광농원 제도) 대한민국 대표 관광농원을 엄선·홍보하여 관광농원을 활성화하고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14년 처음 시행
 - 주변 및 내부경관 아름다움, 영농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시설관리 및 편의시설 확보 여부, 고객서비스 등 5개 분야 14개 항목전문가 현장 심사 및 심의회 거쳐 최종 17개소 선정

※ 2015 우수 관광농원

(경기) 물고기, 청암, (강원) 금학산, 정강원, (충남) 팜카밀레, 한밭, (전북) 무주,

(전남) 웅치, 지리산치즈랜드, (경북) 비슬,

(경남) 배내허브랜드, 산방산비원, 양탕국, 얼음골폭포, 지리산오도재, 합천호, (제주) 휴애리 관광농원

- 우수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홍보 실시 및 지자체 주관 행사에 적극 활용토록 안내

자료 : 농민신문·제민일보(2015.11.06.) / 연합뉴스(2015.11.12.) / NSP통산·경남신문·경북매일신문·경상매일신문·뉴데일리·아주경제·전북일보(2015.11.13.)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우리나라 관광농원 어디가 좋을까요?」(2015.11.11.)

㉔ 농정이슈

□ 농업분야 창조경제 리더 ‘신지식농업인’ 선정

- [농식품부, 신지식농업인 10명 신규 선정]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 선정
 - (신지식농업인) '99년부터 선정, '14년까지 총 370명, 현장실습장 지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
 - 식품가공 4, 과수 2, 채소 2, 화훼 1, 잡곡 1, 총 10명 선정

■ 2015년 신지식농업인 명단 ■

번호	성명	나이	시·군	분야	품목
1	구익현	32	대구 달성	식품가공	천연식초
2	김성도	57	경기 이천	화훼	국화
3	장문호	59	경기 가평	식품가공	임산물(잣)
4	박수정	49	강원 삼척	식품가공	전통장류
5	정훈백	55	충북 음성	식품가공	들깨
6	김인기	50	전북 장수	채소(과채)	토마토
7	이상목	47	전남 신안	잡곡	수수, 녹두
8	서상욱	51	경북 포항	과수	사과
9	강동춘	58	경남 사천	채소(과채)	토마토
10	강창국	54	경남 창원	과수	단감

자료 : 아주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헤럴드경제(2015.11.06.) / 매일신문문화일보(2015.11.07.) / 강원도민일보
경남일보농민신문아시아뉴스통신(2015.11.08.) / 세계일보한국농어민신문(2015.11.10.) / 한국농업신문
(2015.11.11.) / 전업농신문(2015.11.13.)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업분야 창조경제 리더 ‘신지식농업인’ 선정」(2015.11.05.)

정책브리핑 내년 봄 가뭄대책 예산 편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11.11.)

□ 개요

- [농식품부, 내년 봄 가뭄대비 예산 1,450억 원 추가 편성] '15년 예비비 423억, '16년 가뭄대책 연계사업비 1,027억 원
 - 가뭄 장기화 대비 충남 서부권 등 내년 봄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에 중점

□ 주요내용

- 「공주보-예당지」, 「상주보-화달지」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 금년도 착수
 - (공주보-예당지) △올해 예비비 15억 지원하여 조사설계 착수, △'16년 400억 예산 반영하여 도수로 공사 추진→'16년 6월에 154ha에 대한 부분급수 가능 전망, △'17년 나머지 사업비 573억 지원, △예타면제 및 관련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등 행정처리 최대한 간소화 계획
 - (상주보-화달지) △올해 예비비 5억 지원하여 조사설계 착수, △'16년 327억 지원하여 도수로 공사 완공 예정→'16년 6월 전체 수혜면적(798ha)에 대한 안정적 용수 공급 가능 전망
- 농어촌공사관리 저수지 중 저수율 50%미만 178개소(4,239천㎡)에 대한 준설을 위해 예비비 403억 원을 지원, 연내 마무리 계획
 - 금년 6월부터 수리시설개보수,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및 특별교부세(안전처)를 세 차례에 걸쳐 443억 원(국고 394, 지방비 49) 지원, 750개 저수지(4,495천㎡)에 대한 준설 진행 중
- 내년 봄 가뭄 확산 대비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등 긴급용수대책 추진 위해 '16년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를 정부안 125억 원에서 425억 원으로 300억원 증액 추진
- 국민안전처...지자체 가뭄대책 지원 위해 지자체 수요 바탕으로 특별교부세 259억 원 연내 별도 지원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자료 : 관계부처(2015.11.10.)

☐ 개요

- [정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 심의·확정
 - 아시아 중심의 지원 기조 유지, 아프리카 비중의 점진적 확대, 최빈국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의 지원 등 원조의 인도주의적 성격 강화 예정

☐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추진결과 평가

-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신흥공여국으로 자리매김
 - (ODA 규모) ODA/GNI는 '14년 0.13%(잠정)로 목표(0.25%) 미달성, 다만 DAC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 기록(12%)
 - (유무상 비율) '14년 기준으로 유상·무상 비율(순지출)은 37:63(잠정)로 목표 비율(40:60)을 대체로 유지
 - (양다자 비율) '14년 기준으로 양자:다자 비율은 예산 기준으로 68:32, 순지출 기준으로 75:25로 목표 비율(70:30)을 대체로 유지
 - (비구속성 비율) '14년 현재 ODA 비구속성 비율은 62%로 목표(75%)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비구속성 비율은 지속 증가 추세

☐ 추진목표

- (재원규모 확대) '20년까지 GNI 대비 0.20% 달성
 - 2030지속가능개발의제가 종료되는 '30년까지 0.30%(DAC 회원국 현 평균 수준) 목표로 추진
- (유무상 비율) '17년까지 현행 비율 40:60 유지(순지출 기준)
- (양다자 비율) 75:25(순지출, 인정액 기준) 수준으로 유지
- (비구속성 비율) '20년까지 유상 55%, 무상 95% 수준으로 확대

㉔ 정책브리핑

□ 추진방향

- [통합적 ODA] ODA 체계 마련(1차) → **통합추진체계 고도화(2차)**
 - **(전략기능 강화)** 시행계획 수립 절차 개선으로 전략적 계획 수립 기능 강화, 국장급 협의체 등 유무상간 협의체 구성·정례화
 - **(무상 통합)**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외교부) 수시 개최를 통해 사업의 조정·심의 및 연계사업 발굴 활성화
 - **(국가협력전략)** 24개 중점협력국 별 중점협력분야 선정
- [내실있는 ODA] 원조규모 확대(1차) → **확대된 재원의 효과적 사용(2차)**
 - **(ODA 콘텐츠)** 기존 개발협력 모델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통해 모델 재정비 추진, 성공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 **(사후관리)** 기관별 사후관리지침 마련, 종료사업 현황조사 실시
 - **(평가환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의무화, 평가 부서 설치
 - **(투명성)** 국제원조투명성기구 가입 및 공개대상 및 항목 확대
- [함께하는 ODA] 참여 확대(1차) → **참여 심화를 위한 플랫폼 확대(2차)**
 - **(범국민 이해·참여)** 사회·전문교과과정에 ODA 내용 반영, 연령별 ODA 참여 기회 확대
 - **(민간 파트너십)** 시민단체·학계·기업 대상 민관협력 프로그램 확대
 - **(민간 자원)** 개발금융 도입 등을 통해 개발협력 자원 규모 확충

연구지원 OECD 경제전망발표

자료 : 기획재정부(2015.11.09.)

세계경제 전망

○ [전망] '15년 2.9%, '16년 3.3% 전망

-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낮은 원자재 가격, 노동 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세계 교역량 감소, 美 금리인상 등에 대한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 유로존일본 경기회복 지연 등 하방요인 존재
- **(미국)** 달러화 강세, 에너지 분야 투자 감소 불구, 민간소비·기업투자 개선으로 **성장세 확대**
- **(유로존)** 저유가 지속,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난민 유입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회복세 지속**
- **(일본)** 노동시장 개선, 법인세율 인하('16년)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 소비세 인상('17년)으로 **성장 둔화 예상**
- **(중국)** 경제 구조 변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15)6.8%→('16)6.5)

■ OECD 및 주요국 전망 ■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15.11월	'15.6월	'15.11월	'15.6월	'15.11월	'15.11월
세계 GDP 성장률	3.3	3.1	2.9	3.8	3.3	3.6
OECD	1.9	1.9	2.0	2.5	2.2	2.3
미국	2.4	2.0	2.4	2.8	2.5	2.4
유로존	0.9	1.4	1.5	2.1	1.8	1.9
일본	-0.1	0.7	0.6	1.4	1.0	0.5
세계교역증가율	3.4	3.9	2.0	5.3	3.6	4.8
OECD 실업률	7.3	6.9	6.8	6.6	6.5	6.3
OECD 물가상승률	1.5	0.7	0.8	1.7	1.5	1.9
OECD 재정수지(對GDP)	-3.8	-3.1	-3.3	-2.5	-2.8	-2.3

연구지원

한국경제 전망

- [전망] '15년 2.7%, '16~'17년에는 민간 소비 증가 등으로 3.1%, 3.6%로 성장세 확대 전망
 - ('15년) 메르스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중국·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둔화·원화강세 등에 따른 수출부진
 - ※ 6월 전망치 3.0% → 11월 전망치 2.7
 - ('16~'17년) 중국·호주 등 주요국과의 FTA 효과, 저유가·임금상승 등에 따른 소비 증가세 확대로 '16년 3.1%, '17년 3.6% 성장 예상
 - ※ 6월 전망치 3.6% → 11월 전망치 3.1
 - 성장세 확대, 유가 안정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17년 2%로 상승
- [위험요인] 대내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기둔화(對中수출이 韓GDP의 10% 차지), 美 금리인상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하방요인

한국경제 전망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15.11월	'15.6월	'15.11월	'15.6월	'15.11월	'15.11월
GDP 성장률	3.3	3.0	2.7	3.6	3.1	3.6
민간소비	1.8	2.3	2.1	2.8	2.9	3.0
총고정자본형성	3.1	4.0	4.5	4.4	4.0	3.6
수출	2.8	1.7	0.2	5.9	2.8	4.6
수입	2.1	2.6	2.6	5.9	3.3	3.9
실업률	3.5	3.6	3.7	3.5	3.5	3.4
소비자물가	1.3	0.8	0.7	1.9	1.6	2.0
일반정부 재정수지	0.9	1.0	0.0	1.0	0.5	0.8
경상수지(對 GDP)	6.3	7.0	7.3	6.6	6.3	6.6

■ 주요국 성장 전망 ■

(단위 :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5.11월	15.6월	15.11월	15.6월	15.11월	15.11월
세계경제		3.3	3.1	2.9	3.8	3.3	3.6
미국		2.4	2.0	2.4	2.8	2.5	2.4
유로		0.9	1.4	1.5	2.1	1.8	1.9
일본		-0.1	0.7	0.6	1.4	1.0	0.5
독일		1.6	1.6	1.5	2.3	1.8	2.0
프랑스		0.2	1.1	1.1	1.7	1.3	1.6
영국		2.9	2.4	2.4	2.3	2.4	2.3
한국		3.3	3.0	2.7	3.6	3.1	3.6
그리스		0.7	0.1	-1.4	2.3	-1.2	2.1
스페인		1.4	2.9	3.2	2.8	2.7	2.5
이탈리아		-0.4	0.6	0.8	1.5	1.4	1.4
호주		2.7	2.3	2.2	2.9	2.6	3.0
뉴질랜드		3.0	3.4	2.3	3.0	1.9	2.3
OECD		1.9	1.9	2.0	2.5	2.2	2.3
비회원국	브라질	0.2	-0.8	-3.1	1.1	-1.2	1.8
	중국	7.3	6.8	6.8	6.7	6.5	6.2
	인도	7.3	6.9	7.2	7.6	7.3	7.4
	러시아	0.6	-3.1	-4.0	0.8	-0.4	1.7

OECD Economic Outlook 한국 전망 원문

3. DEVELOPMENTS IN INDIVIDUAL OECD COUNTRIES AND SELECTED NON-MEMBER ECONOMIES

KOREA

The economy was hit by two shocks in 2015 - an outbreak of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and a marked slowdown in demand from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 that reduced output growth to around 2½ per cent. While the MERS outbreak has been resolved, weaker demand from Asia remains a headwind to growth. Nevertheless, a pick-up in private consump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output growth to 3% in 2016 and 3½ per cent in 2017, while inflation rises to around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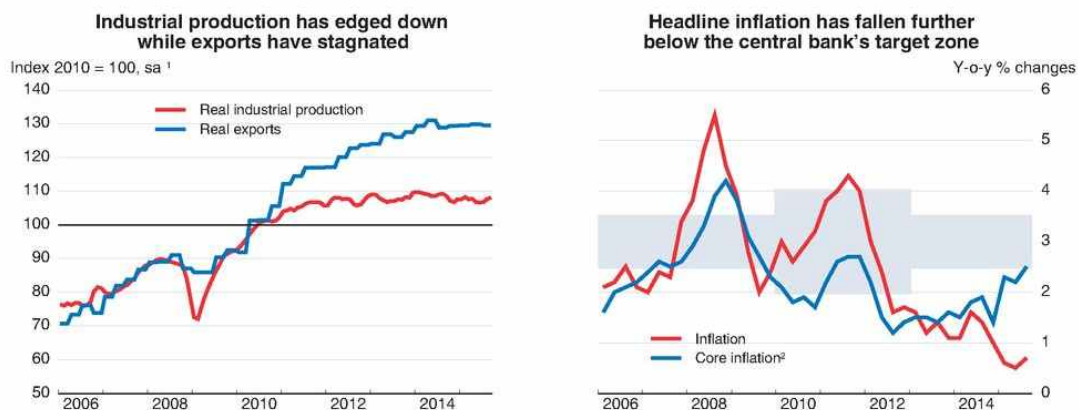
The 2015 fiscal stimulus ought to be supplemented by further measures in 2016. With inflation far below the target range of 2.5% to 3.5%, an additional cut in the policy interest rate would be beneficial. The top policy priority should be wide-ranging structural reforms, including those in the 2014 Three-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to sustain Korea's growth potential in the face of rapid population ageing and to make growth more inclusive.

Korea continues to promote green growth, launching a second five-year plan and an emissions trading system in 2015 and boosting public investment in green technology. Nevertheles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nergy intensity rose during the 2009-13 green growth plan. A well-functioning emissions trading system should promote investment in green technology, thereby boosting growth, while helping achieve Korea's target of a 37% reduction in emissions from a business-as-usual baseline.

Korea is rebounding from the 2015 shocks

Weaker demand from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which account for about half of Korean exports, has slowed exports since the beginning of 2015. The appreciation of the won, which rose more than 20% in trade-weighted terms during the three years to April 2015, also reduced Kore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negative external shock was compounded by the MERS outbreak in June, which led to a contraction in private

Korea



1. Exports on a national accounts basis and a three-month moving average for industrial production.

2. OECD measure, which excludes food and energy.

Source: Statistics Korea; OECD Economic Outlook 98 database; and Bank of Kore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96366>

3. DEVELOPMENTS IN INDIVIDUAL OECD COUNTRIES AND SELECTED NON-MEMBER ECONOMIES

Korea: Demand, output and prices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urrent prices KRW trillion	Percentage changes, volume (2010 prices)				
GDP at market prices	1 377.5	2.9	3.3	2.7	3.1	3.6
Private consumption	707.6	1.9	1.8	2.1	2.9	3.0
Government consumption	204.3	3.3	2.8	3.6	2.8	3.0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407.3	3.3	3.1	4.5	4.0	3.6
Final domestic demand	1 319.2	2.5	2.4	3.1	3.2	3.2
Stockbuilding ¹	19.7	-1.0	0.5	1.0	0.1	0.0
Total domestic demand	1 339.0	1.4	3.0	4.0	3.4	3.2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776.1	4.3	2.8	0.2	2.8	4.6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737.6	1.7	2.1	2.6	3.3	3.9
Net exports ¹	38.5	1.5	0.5	-1.1	0.0	0.5
<i>Memorandum items</i>						
GDP deflator	—	0.9	0.6	2.1	0.7	1.8
Consumer price index	—	1.3	1.3	0.7	1.6	2.0
Private consumption deflator	—	1.0	1.1	0.8	1.6	2.0
Unemployment rate	—	3.1	3.5	3.7	3.5	3.4
Household saving ratio, net ²	—	5.6	7.0	7.2	7.0	6.8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³	—	1.3	0.9	0.0	0.5	0.8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⁴	—	..	..	..	..	..
General government net debt ⁴	—	..	..	..	..	..
Current account balance ³	—	6.2	6.3	7.3	6.3	6.6

1. Contributions to changes in real GDP, actual amount in the first column.

2. As a percentage of disposable income.

3. As a percentage of GDP at market value.

4. Consolidated data on an SNA 2008 basis is not available.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98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97131>

consumption in the second quarter. Inflation remains below 1% and the current account surplus is still above 7% of GDP, despite a rebound in growth since mid-2015.

With inflation undershooting its target range since 2012, the Bank of Korea has cut its policy rate by 1 percentage point since mid-2014 to a record-low 1.5%. Monetary conditions have also been eased by a 5% depreciation of the won from its April peak. The projection assumes that the central bank cuts the policy rate once more before launching monetary tightening in 2017.

Fiscal policy has also shifted to a more pro-growth stance. Government spending, initially set to rise by 5.5% in 2015, was further boosted in mid-2015 by fiscal stimulus equivalent to 1% of GDP. A fiscal package is also needed in 2016 to support the expansion; otherwise central government spending growth would slow significantly. The fiscal plan for 2015-19 projects that the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budget, excluding the social security surplus, will remain in deficit through 2018.

The measures in the government's 2013 roadmap to achieve a 70% employment rate have promoted job creation. The employment rate has risen by about one percentage point since 2013, to around 65.5%. The largest increase has been among women, due in part to the free provision of childcare for children up to age five. Further expanding female

employment is essential to offset the fall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from 2017 and to promote social cohesion.

Growth and inflation are projected to pick up during 2016-17

Despite weaker demand from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output growth is expected to gain momentum, rising from 2¼ per cent in 2015 to 3½ per cent in 2017. Free trade agreements with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in 2014, and China in 2015 will support export growth. Despite higher wage gains, high household debt will continue to constrain private consumption, which has lagged output growth since 2006. Faster output growth and the stabilisation of oil prices are expected to boost inflation to 2% in 2017, while the current account surplus will remain high at around 6½ per cent of GDP.

With merchandise exports to China accounting for 10% of Korean GDP, the second largest share in the world, a sharper-than-expected slowdown in China would significantly slow output growth in Korea. Another possible downside risk is financial turbulence following the expected rise in US interest rates, although the sharp reduction in Korea's short-term foreign debt limits the risk of capital outflows. On the domestic side, an additional increase in household debt could further constrain private consumption. On the upside, effective structural reforms could reignite Korea's exports, which have grown at an annual pace of only 1.4% during the past two years to September 2015.

10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11.06.)

주요내용

- [식량가격지수] '15년 10월 식량가격지수 162포인트(3.9% ↑), '12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16% ↓
 - 10월 식량가격 급등은 설탕, 유지류, 유제품 가격 상승이 전인
 - ※ 식량가격지수: ('12.7월)213→('14.10월)192.7→('15.3월)171.5→(8월)155→(9월)155.9
- 품목별 식량가격지수
 - (곡물) 157.4포인트…전월 대비 1.7% ↑, 밀과 옥수수 가격 상승에 기인
 - (유지류) 142.6포인트…전월 대비 6.2% ↑, 엘리노 영향에 따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내년도 팜유 생산량 감소 우려
 - (설탕) 197.4포인트…전월 대비 17.2% ↑, 엘리노 등 날씨의 영향, 브라질 중남부 지역 폭우가 사탕수수 재배에 악영향
 - (육류) 168.8포인트…전월 대비 0.3% ↓, 3월 이후 안정세 지속
 - (유제품) 155.6포인트…전월 대비 9.4% ↑, 모든 유제품 가격 큰 폭 상승, 뉴질랜드 우유 생산량 감소 우려에 기인
- 세계 곡물 수급 전망
 - (생산량) 2,529.6백만 톤…전년 대비 1.1% ↓
 - ※ 밀0.4%(3.1백만 톤) 증가 / 잡곡2.2%(28.8백만 톤), 쌀0.6%(2.7백만 톤) 감소
 - (소비량) 2,527.8백만 톤…전년 대비 1.2% ↑
 - ※ 밀2.0%(14.5백만톤), 잡곡0.7%(8.8백만톤), 쌀1.2%(6.0백만톤) 증가
 - (기말재고량) 637.6백만 톤…전년 대비 0.8% ↓
 - ※ 밀2.4%(4.8백만톤) 증가 / 잡곡1.4%(3.7백만톤), 쌀3.7%(6.4백만톤) 감소

면류에 대한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11.11.)

개요

- 농식품부, **면류 시장에 대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
 - 우리나라 개별 가공식품의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 조사분석, '10년부터 매년 품목별 시장 정보를 제공

주요내용

- **(생산)** '14년 국내 면류 총 생산량 81.6만 톤, 생산액 2.5조 원
 - '07년 이후 **3.1% 수준의 증가세**, 최근 3년 생산실적은 다소 정체
- **(소비)** 국민 1인당 연간 13.3kg 면류 소비
 - 유당면류(라면) 섭취량 9,153g, 국수 2,760g, 냉면 961g 등
 - **라면의 경우 1인당 연간 약 76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

연도별 국민 1인당 면류 소비량

(단위 : g, %)

	2010(A)	2011	2012	2013	2014(B)	증감 (A/B*100)
유당면류(라면)	8,035.4	9,014.7	8,246.9	8,930.7	9,153.3	13.9
일반면류	4,393.1	3,970.8	4,300.8	4,225.6	4,116.0	-6.3
국수	3,156.9	2,895.3	2,900.1	2,878.3	2,759.6	-12.6
냉면	1,092.1	841.6	1,017.1	837.6	961.4	-12.0
당면	60.6	72.8	67.8	128.1	72.8	20.1
파스타류	83.5	161.2	293.2	154.4	158.8	90.2
기타면류	-	-	22.7	227.2	163.2	620.3
전체 합계	12,428.5	12,985.5	12,547.7	13,156.3	13,269.2	6.8

- **(수출입)** 수출액 약 320,216천 불, 수입액 약 139,847천 불, **약 1.8억 불 무역수지 흑자**
 - '07년 이후 연평균 8.6%(수출), 9.1%(수입)의 증가율

연구지원

- △주요 수출 품목…라면(65.1%)이 압도적, △주요 수입 품목…당면(50.1%)과 기타 파스타(37.4%) 등 일반면류가 대다수를 차지

면류 수출입 현황

년도	수출량(톤)	수출액(천\$)	수입량(톤)	수입액(천\$)
2007년	58,075	179,366	81,847	76,076
2008년	60,190	200,281	82,591	91,956
2009년	66,355	207,304	81,081	86,068
2010년	73,598	240,149	90,869	99,684
2011년	85,052	290,256	89,477	122,448
2012년	91,290	315,628	93,564	127,201
2013년	95,049	320,813	98,849	133,755
2014년	96,515	320,216	105,980	139,847

- (소비트렌드) **고령화, 웰빙 식문화 확산** 등에 따른 저칼로리·저염 트렌드, 면발 차별화 전략, 국물없는 라면 인기
 - 다이어트 및 식이요법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고구마, 단호박 등의 원료로 만든 국수제품 인기**, 라면스프에서도 나트륨 함량 줄이는 추세
 - 굵은 면발이나 파스타 식감을 살린 라면 등이 인기
- (소비태도) 일반 면류 섭취는 ‘주 1~2회’가 36%, **전체 응답자의 87.4%가 한 달에 1번 이상 일반 면류 섭취**
- (해외동향) **2013년 기준 세계 면류시장 규모는 약 651억 불**, 이 중 인스턴트 면류가 44.0%, 건면 파스타 39.0%
 - 저탄수화물·글루텐 프리 고급 제품 선호 경향, 미국의 경우 최근 3년간 ‘low’, ‘no’, ‘recuded’를 강조한 식품 출시율이 2배 이상 증가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대외협력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